

# 한경협

# ESG Bulle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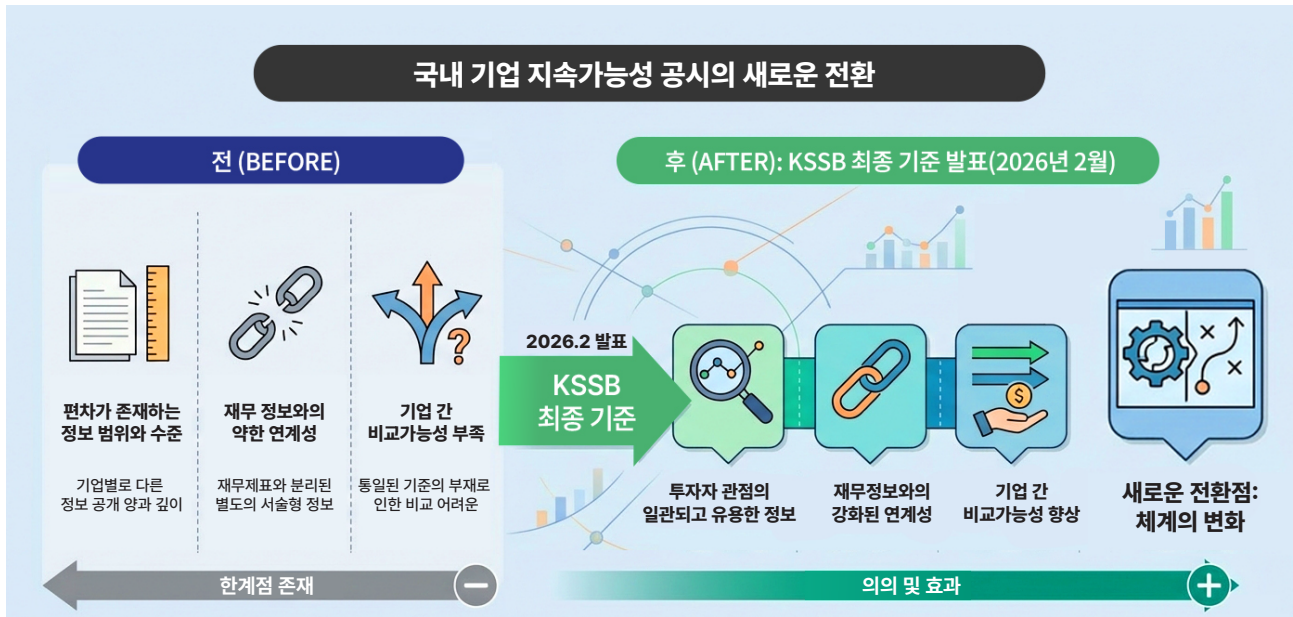
2026. 3 | 제 24 호

K-ESG 얼라이언스 사무국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한경협 ESG경영자문단이 ESG 핵심 이슈에 대해 꼭 짚어 설명드리는 'ESG Bulletin'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 KSSB 최종기준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과제: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공시를 중심으로

윤나영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팀장

2026년 2월 KSSB가 최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하, KSSB 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해 왔으나, 정보의 범위와 수준, 재무정보와의 연계성, 기업 간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편차가 존재해 왔다. 이번 최종기준 발표의 의의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관점에서 보다 일관되고 유용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추가적으로 서술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성 사안을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재무적 영향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체계로 공시의 성격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Nano Banana - 이미지 생성)

## 1. KSSB 기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SSB 기준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공통 구조를 따른다. 핵심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단기·중기·장기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특히 전략 공시는 이러한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 경영진의 의사결정, 그리고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보여주도록 한다. 이는 공시의 목적이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투자자가 기업의 전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연계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재무적 영향 정보다. 투자자는 기업이 어떤 지속가능성 사안을 중요하게 보는지뿐 아니라, 그것이 자산가치, 비용구조, 투자계획, 자금조달, 현금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고자 한다. 재무적 영향 공시는 바로 이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핵심 장치라 볼 수 있다.

## 2. 재무적 영향 공시의 접근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는 중장기적 성격을 띠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다른 경영환경 요인과 중첩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업은 처음부터 정교한 수치를 제시하려 하기보다, 중요한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그것이 사업모형과 가치사슬, 재무제표의 어떤 항목과 연결되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시의 핵심은 숫자 자체보다 영향이 재무정보로 이어지는 경로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있다.

우선 기업은 보고기간 중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이미 반영된 현재 재무적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산 손상, 총당부채, 비용 증가, 매출 감소 등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다면 해당 위험 또는 기회와 관련 계정과목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아직 회계상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면, 현재 재무적 영향이 없다는 사실과 그 이유 역시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차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당기에는 직접적인 손익 반영이 없더라도 향후 1년 내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위험과 불확실성의 성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은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예상 재무적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이때는 단순한 전망치보다 전략과 자원배분 방향에 따라 예상되는 투자, 운영 변화, 자금조달 계획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양적 정보는 단일값뿐 아니라 범위로 제시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그 점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재무제표와의 연계 및 실무적 고려사항

재무적 영향 공시가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와의 연계가 분명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재무제표와 별도의 보고가 아니라,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고기업, 보고기간, 보고시기, 표시통화는 재무제표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공시 작성에 사용하는 데이터와 가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것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필요할 경우 재무제표 주석과의 상호참조를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손상차손, 총당부채, 매출 감소와 관련된 정보가 재무제표에 이미 기재되어 있다면, 지속가능성 공시에서는 그 정보가 어떤 위험 또는 기회와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중복되는 수치는 상호참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경영진의 판단도 중요하다. 기업은 단기·중기·장기의 기간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정보를 단일값 또는 범위로 제시할지,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를 어떻게 결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단이 자사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자본배분에 사용하는 계획기간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모든 기업이 처음부터 모든 재무적 영향을 완벽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영향의 분리 식별이 어렵거나 측정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양적 정보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와 함께 관련 재무제표 항목에 대한 질적 설명을 제공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정교함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 4. 산업별 적용과 시사점

재무적 영향 공시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각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 전략, 자산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기후 관련 위험이나 기회라 하더라도 어떤 산업에서는 당기 재무제표에 즉시 반영되고, 어떤 산업에서는 차기 회계연도 장부금액 조정 위험으로 나타나며, 또 다른 산업에서는 중장기적인 투자와 운영 변화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업종별 일반론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사 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어떤 위험과 기회가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식별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연결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에너지 집약적 생산공정을 보유한 기업은 탄소세 도입이나 규제 강화에 따라 운영비용 증가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전환 과정에서 자산 손상, 내용연수 재검토, 신규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운송·물류업처럼 차량과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현재 손익보다 향후 투자 부담과 현금흐름 변화가 더 중요한 설명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전환 계획은 당기 재무제표에 즉시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향후 몇 년간의 자본적 지출, 운영비 절감 효과, 자금조달 필요성과 연결되어 예상 재무적 영향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유통업이나 소비재 산업은 물리적 위험과 소비자 선호 변화가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을 가진다. 물리적 사업장과 재고가 중요한 기업은 홍수나 폭염 등으로 보험료, 재고관리비용, 운영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소비자 선호 변화에 민감한 산업은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매출 감소나 제품 수요 재편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다른 경영 요인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정량정보보다 관련 재무제표 항목과 영향 경로를 질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결국 산업별 예시는 장식이 아니라 재무적 영향 공시의 현실성을 보여주는 장치다. 제조업은 설비와 원가구조, 운송업은 자본적 지출과 전환투자, 유통·소비재 산업은 운영비용과 수요 변화처럼 업종마다 재무적 영향이 드러나는 경로가 다르다. 따라서 기업은 업종별 일반론을 참고하되, 자사 사업에서 실제로 중요한 위험과 기회가 무엇인지, 그것이 현재 영향인지, 차기 회계연도 조정 위험인지, 아니면 중장기 예상 영향인지 구분해 설명하는 방향으로 공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 맺음말

종합하면, KSSB 기준은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보다 체계적이고 연결성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모든 영향을 단기간 내 완벽하게 정량화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사에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그것이 현재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차기 회계연도에 어떤 조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재무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일관된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이다.

향후 공시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은 단순히 지표나 수치의 양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지속가능성 사안과 전략, 재무정보, 내부 의사결정 간의 연계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여주는지에 의해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준의 도입은 공시체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경영과 재무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고 설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Reference

Friede, G., Busch, T., & Bassen, A. (2015). ESG and financial performance: aggregated evidence from more than 2,000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Sustainable Finance & Investment*.

Khan, M., Serafeim, G., & Yoon, A. (2016). Corporate sustainability: First evidence on materiality. *The Accounting Review*.

Eccles, R. G., Ioannou, I., & Serafeim, G. (2014). The impact of corporate sustainability on organizational processes and performance. *Management Science*.

European Commission. (2022).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European Commission. (2023). *Regulation and proposals related to EUDR, EUBR, ESPR, RTS/ITS*.

EFRAG. (2021). *Proposals for EU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OECD. (2016).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United Nations. (2011).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2022). *Guidance on enforcement of the UFLPA*.

Eisenberg, E. M. (1984). *Ambiguity as strategy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ragón Correa, J. A., Marcus, A., & Vogel, D. (2020). The effects of mandatory and voluntary regulatory pressures on firms' environmental strategies.

Nipper, S., Ostermaier, A., & Theis, J. (2022). Mandatory disclosure of standardized sustainability metrics: The case of the EU Taxonomy Regulation.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2026. 02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내용, 한국회계기준원, 2026. 02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2026. 02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금융감독원, 2026. 02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 고도화 방안, 한국신용정보원, 2026. 02